

命令法 語尾와 恭遜法의 等級

——근대 국어와 경상도 방언의 경우——

徐 賴 穆*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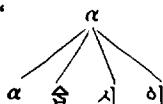
이 글은 「捷解新語」에 나타난 近代國語 命令法 語尾들의 특징을 정리하여 中世國語와 現代 慶尙道方言 사이의 중간 단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된다. 특히 「捷解新語」初刊本과 重刊改修本의 차이점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얻게 된 몇 가지 사실과 現代 慶尙道方言의 命令法 語尾가 가지고 있는 特異性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 결과 우리가 도달하게 된 것은 한 문장이 명령문으로 끝났음을 나타내는 명령법 형태소와 話者와 聽者의 연령, 신분상의 上下關係에서 결정되는 恭遜法의 등급이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었다. 명령법 형태소는 순수히 叙法上의 문제이고, 恭遜法의 등급은 話用上의 문제이다.

국어 문법 연구에서 한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소위 종결어미 체계를 敬語法의 恭遜法 等級과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은 오랜 관습이다. 그리고 그 恭遜法의 등급에 대한 명칭을 命令法 語尾를 이용하여 부친 것도 이미 관용화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등의 용어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命令法이라는 서법은 話用上으로 話者와 聽者의 대립만 문제 삼는 서법이다. 그러나, 疑問法, 平叙法 등은 話用上의 대립 자체가 화자, 청자 외에도, 제 3의 人物일 가능성이 높은 문장의 主體까지 등장

* 博士課程(國語學專攻) · 서강대

하여 이루어지는 복잡한 것이다. 이것은 敬語法의 축면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安秉禧(1961:108)에서 敬語法의 先語末語尾들을 {-이-} (정확히는 {-（으）이-})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로 나타낸다.) : {-습-}, {-（으）시-} (이것도 편의상 {-시-}로 나타낸다.)로 나누어 “前者는 話者의 聽者에 따르는 陳述의 傳達方式에서 결정되는 接尾辭이요, 後者는 活用하는 말 곧 用言 自體의 경어적인 성질에서 결정되는 接尾辭이다”라고 했을 때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다. {-습-}, {-시-}가 이루는 범주와 {-이-}가 이루는 범주는 평서문이나 의문문의 경우에는 명백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李承旭(1973:128)은 ‘ α ’라 하여 이 形態素들의 대립



체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보였고, 朴良圭(1973:86)에 와서 ‘시 : \alpha¹’, ‘습 : \alpha²’, ‘이 : \alpha³’과 했을 때 우리는 이 敬語法의 세 先語末語尾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 국어 文法의 記述에서 이 形態素들의 後繼라 할 수 있는 요소들의 결합체인 文章 終結의 語尾들에 대하여 명백한 體系的 說明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채, ‘-ㅂ니다’, ‘-ㅂ니까’나 ‘-ㅂ쇼’, ‘-십시오’ 등과 같은 單位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관에 부딪혀 있다.¹⁾ 이러한 난관의 1차적 원인은 16세기를 넘어서면서 그 기능에 동요를 보이기 시작한 {-습-}이 17세기쯤에 이르면 謙讓法의 15세기적 기능을 거의 잃어 버리고, 공손법의 {-이-}가 담당하고 있던 ‘화자 : 청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용되기 시작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공손법의 {-이-}가 그 형태소 외연상의 특이성

1)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탐색의 결과를 高永根(1974a, b, 1976)으로 이어지는 현대 국어의 終結語尾, 尊卑法, 文體法에 대한 일련의 노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때문에 현대 국어에 와서 분명하게 식별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공손법의 등급을 종결어미의 어떤 단위와 묶어 두려는 데서 생긴 개념상의 혼란이 이 문제를 난관에 빠뜨린 한 중요한 배경이었음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명령법은 다른 서법과 달라서 話者가 聽者에게 어떤 行動을 要求하는 서법이다.²⁾ 따라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청자 자신이 문장의 주어이면서, 행동의 주체, 즉 동작주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聽者에 대비하여 話者를 낫춘다는 恭遜法의 {-이-}의 기능과 화자나 청자에 대비하여³⁾ 주체를 높인다는 尊敬法 {-시-}의 기능이 명령문에서는 같아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령문의 공손법 등급의 분화는 {-시-}도 담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 명령문의 공손법 등급과 平叙文, 疑問文의 공손법 등급이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平叙法, 疑問法, 命令法등의 語尾를 恭遜法의 등급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는 것은 문법 기술의 복잡성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배태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의 기본 태도는 叙法 形態素, 즉 平叙, 疑問, 命令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그것들대로 따로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기술하고, 敬語法 形態素, 즉 尊敬, 恭遜, 謙讓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그것들대로 따로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공손의 등급은 서법 형태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⁴⁾ 선어말 어미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선어말 어미들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화용상으로 필요한 공손의

2) J. Lyons(1977: 747ff)에 이러한 점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3) 청자에 대비한 {-시-}의 사용 문제는 이 익섭(1974:43)에서 문제되었던 것이다.

4) 여기에서 {-라}, {-오}, {-소서}의 구분은 어디에 근거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이들의 등급은 분명히 '해라'보다는 '하오'가 높고, '하오'보다는 '하소서'가 더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이 기본적인 등급을 구분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다른 등급, 예컨대 '하십시오' '합쇼' 같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등급을 조정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국어 종결어미의 機制라고 본다.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화용상으로 결정되는 공손법의 등급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암묵적 전제가 들어있다. 실제의 대화에서 화자는 상대방인 청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묘한 갈등을 느끼게 된다. 자기보다 낮기는 하지만, 그 낮은 정도는 상대에 따라 다른 것이며, 자기보다 높은 경우에도 그 높음의 등급은 다양하다. 이 다양한 등급의 구분을 母語話者(native speaker)들이 다 구별하고, 거기에 알맞은 적절한 어미를 선택하여 구사하고 있는데, 몇개의 대표적 어미로 그 등급을 못박아서는 정밀한 등급의 기술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어미(형태소들의 결합체)를 그대로 다 기술해 주려고 하면 어미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문법 기술이 너무 복잡해 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찾아야 하고 그 원리에 의하여 자동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원리는 기본적인 등급은 높이는 것과 높이지 않는 것으로만 보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섬세한 등급상의 구분은 선어말 어미들이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법 형태소들과 경어법의 선어말 어미들이 자립적으로 별개의 체계를 이루는 것이 되고, 문법 기술은 문법 기술대로 간명한 원리에 의하여 체계화 되면서, 등분상의 섬세한 구분은 그것대로 정밀하게 기술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촘스키식으로 표현하면 서법 형태소와 선어말 어미들이 별개의 모듈(module)을 형성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A. Radford(1981) 참조).

II

근대 국어의 기점에 원고가 완성되고, 17세기 후반에 간행된 「捷解新

語」初刊本과 약 1세기 후에 다시 刊行된 重刊改修「捷解新語」사이의 언어상의 차이점은 언어사 기술의 한 모범적 증거 자료로 다루어 질 수 있다.⁵⁾ 우리는 終結語尾 중 命令法 語尾를 살펴 봄으로써 中世國語와 「捷解新語」初刊本 및 重刊改修本에 나타난 近代國語 사이의 變化 面貌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별히 初刊本과 重刊改修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고친 부분을 주의 깊게 추적함으로써 中世國語에서 近代國語로의 시대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 차이로 생각되는 敬語法과 定動詞語尾들의 변화 양상을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⁶⁾

「捷解新語」의 初刊本과 改修本(未見), 重刊改修本의 관계는 몇 가지 주의를 요하는 면이 있다. 初刊本은 卷十 末尾에 ‘康熙十五年丙辰孟冬開刊’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676年에 刊行되었다. 그러나, 重刊改修本의 凡例에 ‘新語之刊行雖在 肅廟丙辰(1676)而編成則在 萬曆戊午(1618)間 故彼我言語各有異同不得不 積稟改正’(()안은 필자)이라 쓴 것으로 보아 원고는 1618年경에 完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7세기초의 국어 자료를 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刊行할 때 원래의 원고를 전혀 손질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또 원고 완성의 시기가 卷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卷五에서 卷八까지의 내용이 康遇聖이 1624年에 日本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과 일치하는 사실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卷五~卷八의 완성은 빨라야 1625년이 될 것이므로”, 다른 卷과의 이 7년간의 차이점도 고려되어야 할지 모른다.

重刊改修本은 그 序에 ‘辛丑仲冬下翰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李湛謹序’로 나와 있으므로 1781년에 간행된 것이다. 18세기 후기의 국어를 반영

5) 金完鑽(1957)에서 일본어 轉寫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검토된 이래 이 두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음은 오히려 기이하기까지 하다.

6) 이 두 책의 대조는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체 작업에서 이 시대 언어 현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東萊 1(四, 12) : 東萊가(改四, 17), 東萊가(一, 26) : 東萊계서(改二, 1)등은 그 차이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7) 森田武의 捷解新語 解題(1958:8-14) 참조.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初刊本과의 연대 차이는 간행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105년, 원고 완성 시기와 비교하면 163(혹은 156)년이 된다. 그러나 ‘戊辰(1748)改修時考校官’으로 보아 이보다 33년 전에 改修本이 나온 것으로 생각되므로 重刊改修本의 언어 자료는 改修本을 디딤돌로 하여 그底本인 初刊本의 영향을 많이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言語資料와 刊行年代의 절대적 일치는 바라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고친 부분은 음미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重刊改修本의 凡例⁸⁾는 고친 부분은 주로 日本語의 극심한 變移로 인한 것이고 국어의 변화나 일본어와 통하지 않아 고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명언하고 있다. 康遇聖이 어느 지역의 일본어 방언을 토대로 원고를 작성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어의 중심이 京都에서 江戸로 옮아가는 시기(徳川氏의 집권시기)⁹⁾였으므로 언어상의 차이가 많이 생겼을 것이다.¹⁰⁾ 국어 부분이 많이 손질되었다면, 국어의 변화나 康遇聖의 方言(慶尙道方言)과 교정자들의 方言 사이의 차이를 보여 줄 수도 있는 절호의 자료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여 주지는 않아서 初刊本과 重刊改修本과의 대조는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빈약하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는 고친 부분들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다루는 몇 개의 미세한 차이들이 가지는 의미는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국어의 종결어미 체계는 叙法에 따라, 平叙, 疑問, 命令, 請誘, 約束, 感歎, 許諾 등¹⁰⁾으로 나누어지고, 또 그것들은 모두 敬語法의 恭遜法 등급에 따라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로 다시 나누어

8) 一. 彼語則古今迥異使彼人讀之或有不知其爲何語者故就其中古今無別者略存之餘悉改正所改者十之八九

一. 我語一從舊書而亦或有古今異宜者及與彼語不相值者則不得不改正所改者十之二三이라 되어 있다.

9) 金完鑑(1957, 1971 再收: 201) 참조.

10) 이 분류는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安秉禕(1965a:132)에 의한 것이다. 高永根(1976)에서는 문체법(1) 설명, 의문, 감탄, 문체법(2) 명령, 허락, 공동 약속, 경계로 나누고 있다.

여러가지 다양한 어미들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중세 국어의 종결 어미에 대한 업적들에서는 그 恽遜法의 등급에 따른 語尾의 分化가 현대 국어와 꽤 다름을 볼 수 있다. 중세 국어는 ‘흐라체’, ‘흐야씨체’, ‘흐소서체’로 恽遜法의 등급이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¹¹⁾ 현대 국어는 위의 4등급 외에도 학자에 따라서 ‘하소서체’, ‘반말체’(즉, ‘해체’, ‘해요체’) 등으로 더 세분하는 경우도 있어서 중간 단계의 등급이 중세 국어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¹²⁾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이 두 체계간의 차이는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의 것이건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소박하게 생각해서, 어떤 언어가 15세기에는 청자를 대우하는 등급이 셋밖에 없었는데, (중세 국어에 ‘흐게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언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문헌 자료의 성격에 기인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 뒤에 다른 등급이 더 필요하여 특정 시기에 필요한 등급을 더 분화시켰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 하겠는가 하는 점은 끊임 없는 反問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¹³⁾

이에 덧붙여 경상도 방언의 명령법 어미와 그 공존법상의 등급 체계를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는 당분간 쓰일 수 있는 모든 명령법 어미와 상정될 수 있는 최대한의 등급을 다 망라해 두기로 한다. 참고로 옆에 평서법, 의문법과 청유법의 어미를 덧붙여 두었다.

11) 安秉福(1665b:122-6)에서 이 세 등급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12) 가장 세밀한 등급상의 구분은 李彌鑑·任洪彬(1983:229-234)의 6등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소서체’가 빠져 있으므로 그것까지 넣으면 7등급이 될 것이다. 고영근(1974b)은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하소서체’로 4등급으로 나누고, 여기에 ‘-요’통합형을 따로 기술함으로써 ‘하게체’만 논의로 하면 중세 국어와 비슷해 진다. 이는 ‘우리말본’ 아래의 구분과 일치한다. 그러나, ‘합쇼체’는 역시 문제로 남는다.

13) 안병희·이웅백(1979:126-7)에서는 4등급(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으로 나누고, 반말은 존비의 등급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반말에 ‘-요’를 붙여 ‘하십시오체’와 같은 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동일한 차원에서의 등급이 될 수 없음을 암묵적으로 보이고 있다.

〈표 1〉

화자	청자	명령	平敍(과거)	疑問(과거)	請誘
어머니	아 들	가라	갔다	갔나/노	가자
어머니	아 들	가	갔어	갔어	가
어머니	아 들	가거라			
아버지	아 저 씨	?가시라 가서			
장모	사 위	가게	갔네	갔는가/고	가세
장모	(나이든)사위	가시게 ?가옵시게			
어머니	아버지	가소	갔소	갔소	감시더
어머니	할머니	가이소			가입시더
어머니	할아버지	가시소			
어머니	할아버지	?가이시소	갔읍니더	갔읍니꺼	가시입시더
어머니	교장선생님	가시이소 ?가십시오			
어머님	(?)하느님	?가소서 ??가시소서 ?가시옵소서	갔읍니더	갔읍니꺼	

이 語尾들이 과연 공손법의 등급 차이로 구분되는지는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 ‘가라’보다는 ‘가거라’가 상대를 더 대우해 주는, 그리고 상당한 친근감이 동반된 경우에 쓰인다.¹⁴⁾ ‘언자 고만 가거라’와 ‘언자 고만 가라’는 분명히 다르다. 등급의 차이보다는 친근감의 표시가 더 강하다. ‘가라’에 상대를 좀 더 대우하려면 ‘가시라’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⁵⁾ ‘가게’보다 ‘가시게’는 상대를 좀 더 대우하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이다. ‘가옵시게’는 약간 어색한 것으로

14) ‘목거라’ ‘보거라’ 등 타동사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거-’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이 방언의 특징이다.

15) 영화 광고문에서 ‘와서 보시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등분 관계로 상위에서 하위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사람에 대한 행동 요구라는 면에서 조금은 고려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조사되었다. 특이한 것은 ‘가이소’이다. 이보다 조금 높은 것이 ‘가시소’인데 그 둘 사이에 등급 차이가 약간 나는 것 같다. ‘가시이소’는 이것들을 쓰는 상태보다 더 높은 상태에게 쓰는 것이다. 물론 ‘가이소’에 {-시-}가 더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 {-시-}와 {-이-}의 순서가 바뀐 ‘가이시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런데 이때의 {-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다.

첫번째 후보는 존경법의 {-시-}이다. 그러나 /ㅅ/의 탈락이 그렇게 쉽게 설명되지 않는 것이 난관이다. 또 ‘가시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중복을 설명하기 어렵고, 어떤 {-시-}가 /ㅅ/을 탈락시키고 어떤 {-시-}가 탈락시키지 않는지 명세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난관이다. 분포상으로도 “*가이고”, “*가이며”가 불가능하고 ‘가시고’, ‘가시며’가 가능한 것도 이 {-이-}가 {-시-}와 같이 부동사 어미 앞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경동사 어미 앞에 올 수 있는 요소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두번째 후보는 공손법의 {-이-}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난관은 있다. 중세 국어의 {-이-}의 출현 환경이 {-다}와 {-가/고} (더 정확히는 ‘-ㅅ+-가/고’) 앞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명령법 {-라}나 {-아씨}, {-쇼셔} 앞에 {-이-}의 출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중세 국어의 명령법은 ‘-소’가 없고, 그 등급은 {-아씨}가 맡고 있다. 중세 국어의 {-이-}가 {-아씨}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현대 경상도 방언에서도 {-소} 앞에 {-이-}가 실현될 수 없으리라는 가정이 성립된다면 이 {-이-}는 공손법의 {-이-}는 아닌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세 국어의 {-아씨}에 대하여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가 꼭 {-아씨}와 통사 의미적 ~~끼~~능이 같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근대 국어에서 {-소}가 생겨나면서 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들의 位階問題가 중세 국어적 질서를 곧이 곧대로 반영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일단 {-이-}가 문제되는 형태소임을 지적하고 우리의 논의를 더 전개하기로 한다.

‘가십시오’와 ‘가소서’는 실제 口語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십시오’는 표준말의 영향을 입은 공식적인 대화에 쓰이고, ‘가소서’는 祈願의 의미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잠정적으로 설정해 둔다.¹⁶⁾

일견하여 이 恭遜法의 등급은 전부 {-라}, {-게}, {-소}, {-소서} 등에 어떤 先語末語尾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先語末語尾는 결국 {-이-} 와 尊敬法의 {-시-}, 그리고, 謙讓法의 {-읍-}으로 생각되는 데, 경상도 방언의 경우, {-읍-}은 극히 드물고, {-시-}는 거의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소} 계통의 앞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들이 어떻게 하여 命令法에서 청자를 대우하는 공손법의 등급을 분화시키는 데에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아울러 {-시-}나 {-이-}의 기능이 따로 있고, 그것들이 명령법 어미와 통합될 때 등급이 미묘하게 나누어진다는 설명을 해야 할지, 아니면 등급 표현의 形態가 {-이소}, {-시이소} 등인 것으로 보아야 할지의 명백히 언어 이론상의 문제인 난점을 제기 한다. 우리는 文法이 본질적으로 形態素 개개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질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語尾와 形態素의 概念을 확립하여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語尾는 形態素이거나 形態素의 결합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어미가 공손법의 등급 분화에 관여한다는 것은 그 어미를 이루고 있는 形態素들의 기능으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語尾를 하나의 單位로 생각

16)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이소’로 대신할 수 있다. 교회에서의 기원과 토속 신앙에서의 기원의 차이는 이를 반영한다. 전자(‘해 주소서’)가 표준어의 간접이라면 후자의 ‘해 주이소’ 같은 표현은 고유 방언적 요소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17) ‘*가이게’, ‘*가이라’가 쓰일 수 없는 것은 {-이-}가 가진 공손법적 기능과 {-게}나 {-라}가 가진 명령법적 기능의 상충에서 생긴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리 오이라’는 가능한 것 같다. ‘*하이라’ ‘*가이라’가 불가능한데 비하여 ‘오이라’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이-}의 실현이 어휘적으로 조건된다는 것을 암시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이라’의 ‘-이-’는 다른 요소인 가능성성이 더 많다.

하는 文法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形態素의 기능은 그것 대로 기술해 주고, 어미들의 기능은 그것대로 따로 기술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엄밀히 말하면 등급은 어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등급의 語尾에 또 다른 등급상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할 때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그 등급상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어떤 形態素가 추가되는 것이다. 그것은 등급은 등급일 뿐, 그것을 나타내는 데는 여러 형태소가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등급과 형태소 혹은 어미를 1대 1로 대응시키려는 데서 오는 文法記述上의 여러 혼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언어에의 올바른 접근이라고 믿는다.¹⁸⁾

이제 이러한 현대 국어 및 경상도 방언의 공손법의 등급을 개관한 뒤에 이들이 「捷解新語」와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 국어 명령법 어미의 등급의 다양한 분화와 경상도 방언 명령법 어미의 등급상의 섬세한 구분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분화는 근대 국어 시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불행히도 의견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단 우리는 그 파악의 근본 방법으로 명령을 나타내는 형태소와 공손을 나타내는 형태소를 분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공손법의 등급 자체는 명령법의 형태소와는 달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命令은 {-라}, {-게}, {-소}, {-소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서 기본적인 등급 분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나머지 다른 등급은 모두 여기에 다른 형태소가 들어간 것이다. 이 점은 <표 1>에서 본 경상도 방언의 명령법 어미의 등급과 평서, 의문, 청유법의 어미의 등급의 불일치를 보면 분명해 진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한 열쇠를 근대 국어에서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대체로 근대 국어의 공손법 등급은 ‘호라체’, ‘호오/호소체’, ‘호읍 소체’, ‘호소서체’로 구분되는데 ‘호읍소체’의 설정 여부가 문제되고

18) 등급은 문법적으로 어 말 형태소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하고(-라, -소, -게, -소서 등),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더 세분화 되기도 한다.

있다. 장 경희(1977)에서는 ‘흐읍소체’를 설정하고 있고, 이 기갑(1978: 38)에서는 ‘흐읍소체’의 설정을 유보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은 이 태도가 둘 다 모순이라는 것이다. 장 경희(1977)이 명령법 어미를 다루면서 ‘-읍소’를 설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흐읍소체’를 설정하면서 ‘흐시소’를 그 속에 넣어 처리한 것도 문제가 된다. 반면에 이 기갑(1978)이 등급을 다루면서, 오히려 ‘흐읍소’의 설정을 보류함으로써 등급 자체의 존재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명령법 어미만 문제 삼는다면 ‘흐읍소’가 얘기될 필요가 없고, 등급만 문제 삼는다면 ‘흐읍소’ ‘흐시소’가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등급상으로는 ‘흐-소’에 {-읍-}이나 {-시-}를 넣은 ‘흐읍소’나 ‘흐시소’가 ‘흐소’보다 더 높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들이 명령법 어미는 아닌 것이다. 명령법 어미는 ‘-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¹⁹⁾ 이제 그 자료들을 등급의 차이에 따라 정리하기로 한다.

■

「捷解新語」에 나타난 명령문들은 ‘-라’, ‘-오/소’, ‘-읍소’, ‘-시소’, ‘-쇼서’, ‘-읍쇼서’로 끝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읍소’와 ‘-시소’이다. 우리의 생각은 ‘-읍소’가 등급의 하나라면 ‘-시소’도 등급의 하나이라야 하고, ‘-시소’가 등급이 아니면 ‘-읍소’도 등급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태소와 등급을 나타내는 語尾를 구분하고자 했던 우리의 기본 입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원활히 다루기 위해서 전제되었던 것이다.

가. ‘흐라체’

중세국어의 ‘흐라체’와 같은 형태인 {-라}가 유지된 것이다. 많은 예

19) {-소}가 진정한 의미에서 명령법 형태소일까 하는 문제도 반성될 여지가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소}는 평서법, 의문법에도 나타나며, 서법상의 구분은 억양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는 아니지만 「捷解新語」時代에도 이 語尾가 쓰였음을 보여 주는 용례가 있다. 자료의 성격이 外交的 問答體이기 때문에 ‘호라체’를 쓰야 할 상황이 보장되지 않은 채, 공손법상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첫 부분에서 아랫 사람을 부르는데 쓰인 ‘아모가히 이리오라(一, 1)’와 같은 예가 매우 귀중한 것이다. 그리고 간접 인용된 내포문의 명령문에 {-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체로 손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명령한 말을 간접 인용하거나 相對方이 自己에게 한 말을 다시 인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손법상으로는 ‘호라체’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예들이 이 등급의 존재를 이 책에서도 확인해 준다.²⁰⁾ 경상도 방언의 {-라}와 일치한다.

- (1) a. 아모가히 이리 오라(一, 1) : 아모가히 이리 오라(改一, 1)
- b. 案內 술오시드라 니르고 오라(一, 1) : 안히 계시면 오려하더라 니르고 오라(改一, 2)
- c. 안조라 니르시니(三, 8) : 안조라 니르시니(改三, 10)
- d. 머그라 니르신 잔마다(三, 11) : 먹으라 니르신 잔마다(改三, 14)
- e. 오래 무디 말고 수이 도라 오라 島主 | マ장 분부 흐 엿소오니(三, 20) :
 오래 묵지 말고 수이 도라 오라 對馬島主도 マ장 分付 흐열소오니(改三,
 25)
- f. 代官네의 하 韶히디 말라 니르옵소(三, 25)
- g. 친히 가 고별을 술오라 흔 일이로소이다(七, 18)
- h. 깃티니 업시 모시게 호라 해야 니르시오니(七, 19)
- i. 奉行께서 이 樣子를 술오라 코 널려왔던티(八, 5) : 奉行네의로서 이 뜰
 을 술오라 해신 일이온티(改八, 6)

나. ‘호오/호소체’

{-오}로 끝난 명령문은 거의 없고, {-소}로 끝난 것이 더러 보인다. 그러나, 그 用例는 지극히 드물다.

20) 자료 제시에서 漢字 數字는 卷數, 아라비아 숫자는 張次이다. 重刊改修本은
 改로 표시하고, 初刊本과 重刊改修本의 사이에는 :을 찍는다. 初刊本의
 내용이 重刊改修本에 없을 때는 비운다.

- (2) a. 아드리거나 나 호는대로 호소(七, 7)
 b. 소임의게 그 소경을 널러 둘리소(七, 12)
 c. 그대도록 모음 멀리 생각다 마소(九, 21)²¹⁾

이것도 ‘호소체’를 사용할 정도의 대화 상대가 극히 제한된 자료상의 특징이다. 이들은 중세 국어의 명령법 어미 ‘-아씨’를 대치하고 그 자리에 ‘-소’를 가져다 놓은 것이다(李基文(1972:214)). 이는 16世紀에 처음 나타나는 ‘-소’와 함께 그 起源이 밝혀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근원을 어디에 두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²²⁾ ‘-소’와 ‘-오’로 나타난 다른 책의 예는 (3)이다.

- (3) a. 몬저 훈간 자오(翻譯 老乞大 上, 63)
 b. 清菜 안주 자오(譯語類解 上, 60)

이들이 ‘자녀네’와 더불어 쓰인 점이나, 존경의 {-시-}를 쓰는 대상에 대한 명령문에도 사용되는 점을 보아 ‘-라’보다는 높은 등급의 語尾임은 분명하다. 경상도 방언의 ‘-소’에 해당한다. 경상도 방언에서는 어른인 화자가 自己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청자에게 사용하는 것이다.

다. ‘호옵소체’

가장 빈번한 출현을 보이는 것으로 ‘-옵소’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捷解新語」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다른 文獻은 오히려 ‘-옵소’ 형 어미가 드물게 나타난다. 이는 아마도 ‘호소’의 {-소} 앞에 謙讓法 先語末 語尾 {-습-}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엄격히 말하면 命令의 뜻은 {-소}에 있고, 등급의 분화는 {-습-}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命令法 形態素는 아니지만, 등급 자체의 분화에는 매우 중요한

21) 이들 예는 모두 初刊本에만 있다. 해당 부분이 중간 개수본에 빠져 있어 ‘-소’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해 볼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중간 개수본에는 ‘-소’로 나타난 명령문이 하나도 없다.

22) 장 경희(1977:19)는 {-습-}에서 그 기원을 찾고, 뒤의 명령법 어미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호옵소’는 ‘호+습+습+생략어미’가 되어 {-습-}의 중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손법은 명령의 形態素를 중심으로 크게 聽者를 존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 큰 등급인 존대와 비존대의 중간에는 또 다른 여러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들 간의 微細한 차이를 語幹과 命令法 形態素 사이에 들어가는 先語末 語尾들이 구분시켜 주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공손법 등급을 구분하는 先語末 語尾들의 기능은 그 先語末 語尾들의 원래의 기능으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 (4) a. 여겨 오르읍소(一, 2) : 여겨 오로읍소(改一, 3)
- b. 아직 편히 안습소(一, 2) : 아직 편히 안삽소(改一, 3)
- c. 이 一杯만 잡습소(二, 7) : 이 一盞은 자읍소(改二, 15)
- d. 催促하여 수이 드리읍소(二, 11) : 催促하여 수이 드리읍소(改二, 21)
- e. 나가 보와 잡습소(四, 9) : 나가 보와 잡습소(改四, 13)
- f. 도움 구줌을 군말 업시 잡습소(四, 17) : 도움 구줌을 나른디 말고 반습소(改四, 23)

(4a-f)의 예들은 모두 初刊本과 重刊改修本 사이에 아무 변동없이 '-읍소'를 연결하고 있는 것들이다. (4b)는 '-읍소'가 '-습소'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4c.e.f)들은 이 {-읍-}의 根源이 謙讓法의 {-습-}임을 明證해 주고 있다(이러한 표기는 근대국어 자료에서도 보기 드문 것으로, 자료상의 특징이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다음의 예들과 함께 고려할 때, 분명 '-소'보다는 聽者를 약간 더 대우해서 쓰는 말이며 '-소서'보다는 조금 덜 대우하는 것이 틀림 없으므로 그 중간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a. 열현이 마른시고 너일 旱旱 초조쇼서/(화자 교체) 그리 旱을거시니 모용 편히 너기읍소(一, 14-15) : (客) 열현이 마른시고 明日 旱旱 초조쇼서 主 그리 旱을거시니 근심 마읍소(改一, 19)
- b. 쇼인네는 본터 못 먹습건마는 감격호오매 먹기를 과히 旱여소오니 그 만 旱야 마른쇼서/그려커니와 나의 소스경워 잔이오니 이 一杯만 잡습소(二, 6-7) : (客) 우리는 본터 下戶연마는 감격호오매 먹기를 과히 旱

열수오니 그만하여 마른쇼서 (主) 그리는 허거니와 나의 권하는 일이
오니이 一盡은 자옵소(改二, 14-15)

- c. 종용히 계시다가 가실양으로 흐읍소/이리 감격호 御憲 시니 다시 술을
양이 업서이다 그려커니와 훌리라도 수이 도라가게 흐쇼서(三, 21): (主)
종용히 계시다가 도라가게 흐읍소 (客) 이리 感激호 御憲시니 다시 술을
양도 업서이다 그려커니와 훌리라도 수이 도라가게 흐쇼서(改三, 26-27)
- d. 江戶奉行의로서 보낸 金子를 자네 외신 사봉의에게 네물을 흥오니 모로미
소양마옵소/견브터 숨드시 우리는 몸 바들 조음이오니 그리 아옵소 또
海上遠路에 두로 쓰려 예상지 無事히 은 우희는 나쁜 일도 업서 이 二三
日內에 出船호을거시니 그리 아르쇼서(八, 18-19)

(5a)의 ‘너기옵소’, ‘마옵소’는 主가 客에게 약간 대접하여 한 말이고
‘초조쇼서’는 客의 말로서 主를 훨씬 더 높이 대접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重刊改修本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5b)에서도 客이 主
에게 말할 때는 ‘-쇼서’를 쓰고 있고 主가 客에게 말할 때는 ‘-옵소’를
사용하고 있다. (5c)에서는 主가 客에게 대하여 ‘흐읍소’로 약간 대접
하여 한 말이고 거기에 대한 客의 대답은 주를 훨씬 더 높이 대접하여
‘흐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보장되는 例文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옵소’와 ‘-쇼서’가 등급 분화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5d)는 불행히도 重刊改修本에는 빠져 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중
간에 話者의 交替가 있었는데도 같은 ‘-옵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뒤의 문장은 話者와 聽者의 변화 없이 ‘-옵소’를 쓰다가 끝에 가서 ‘-쇼
서’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예는 이 등급상의 구분이 분명한 것 같지만
때로 그 구분이 혼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옵소’와 ‘-쇼서’
간의 등급 파악이 혼란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이 初刊本의 ‘-옵소’가
重刊改修本에서 ‘-쇼서’로 고쳐진 것이나 初刊本의 ‘-쇼서’가 重刊改修
本에서 ‘-옵소’로 고쳐진 예들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 (6) a. 明日이라도 흘 양으로 흐읍소(二, 15): (客) 明日이라도 흘 양으로 흐쇼서
(改二, 23)

- b. 아모리커나 자네 맷당흘대로 호옵소(六, 24) : (客) 아모리커나 께서 도 흘대로 호쇼서(改六, 31)
- c. 너일브터 우리 호을거시니 자네네도 그리 아옵소(九, 2) : (客) 너일부 터 우리 시작호을거시니 각각 그리 아르쇼서(改九, 3)
- d. 茶禮는 明日 호오니 미리 출혀거시다가 나실양으로 호쇼서(一, 27) : (主) 東萊제서 요사이는……明日호시게 호을거시니 미리 출현다가 나실 양으로 호옵소(改二, 1-2)

(6a-c)는 모두 初刊本의 ‘-옵소’를 重刊改修本에서 ‘-쇼서’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6d)는 初刊本의 ‘-쇼서’를 重刊改修本에서 ‘-옵소’로 고쳐 놓았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重刊改修本의 主, 客 표시가 쥐고 있다. 初刊本은 主, 客 표시가 없어서 문맥을 파악해야 그 話者와 聽者를 알 수 있지만, 主, 客 표시가 되어 있는 重刊改修本은 우리에게 絶妙한 사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初刊本이 客의 말을 ‘-옵소’로 적었을 때, 重刊改修本의 考校官들은 그것이 잘못된 공손법이라고 판단하여 ‘-쇼서’로 고친 것이다.²³⁾ 主보다는 客이 낫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 客이 主를 相對하여 말할 때는 ‘호쇼서체’를 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初刊本의 ‘-쇼서’를 重刊改修本에서 ‘-옵소’로 바꾼 부분은 話者가 主인 부분이다. 重刊改修本의 校正者들은 主가 客에게 말할 때는 ‘-쇼서’를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명백하다. 그것은 重刊改修本의 교정자들의 言語認識과 初刊本에 관여한 사람들의 그것이 다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初刊本의 執筆時에는 이러한 등급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23) ‘자네→계서’로 ‘자네네→각각’으로 바꾸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시대에 ‘자네’의 등급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 국어도 경상도 방언은 ‘자네’를 낮은 사람에게만 쓰는데 전라도 방언은 같거나 조금 높은 사람에게도 쓴다. 중간 개수본에서는 客이 主에게 ‘자네’를 쓸 수 없다고 파악한 것이 틀림 없다. 그렇다면 초간본의 ‘자네’는 꽤 높지만, 중간 개수본의 ‘자네’는 아주 낮아져서 현대 경상도 방언의 ‘자네’와 비슷한 등급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혼란상이 보인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初刊本에서도 '-쇼서'와 '-옵소'의 구분은 (5a, b)에서 볼 수 있는대로 話者와 聽者에 따른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령법 어미 '-옵소'를 인정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옵소'에 의한 등급의 차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에 관한 한 우리의 견해는 확고하다. 그것은 등급의 차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形態素 次元은 {-옵-}과 {-소}이지만, 등급의 次元에서는 '-옵소'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사실이 이 책에 나타난 日本語의 경어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는,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다음과 같은 '흐시소'의 출현이다. 이 '-시소'가 重刊改修本에 와서 '-옵소'로 바뀐 것은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그대로 유지되거나 '-쇼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 (7) a. 자네네도 헤아려 보시소(一, 32)
 b. 그리 아르시게 잘 츄션 흐시소(五, 24)
 c. 껴 립 업게 지간 흐시소(五, 24)
 d. 쪘도 슬와 불거시니 그리 아르시소(五, 30)
 e. 자네 그 쯔을 두저오려 성각 데호 양으로 미결 흐시소(七, 19)

(7a-e)는 重刊改修本에 해당 문장이 없는 것들이다.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8)의 예들은 사정이 다르다.

- (8) a. 예는 달호기 몫 잘못하여 이러하니 허물 마르시소(二, 9) : (主) 예는 장만 흔 양이 草草히 헛여 이러하거니와 허물 마르시소(改二, 17~18)
 b. 判事네 잘 드르시소(二, 9) : (客) 이리 숨습니(改二, 18)
 c. 使 | 아라 御禮를 솔오시소(七, 4) : (主) 使者에서 御禮를 죠토록 슬와 주쇼서(改七, 4)
 d. 몬체브터 숨던 道理를 잘 성각하여 보시소(八, 8) : (主) 在前부터 숨던 일을 조세히 성각하여 주쇼서(改八, 9)
 e. 출하리 자네 바다서 슈고하던 對馬島 사물들회계나 주시소(八, 9) : (主) 출하리 슈고하던 對馬島 사물의계 주쇼서(改八, 10)

(8a)는 그대로 '-시소'를 유지시킨 것이고, (8b)는 '豁豁'로 平叙文으로 바꾸면서, 최상급을 쓰고 있지는 않다. (8c, d)는 동사를 약간씩 바꾸면서 '-시소'를 '-쇼서'로 고친 것이고, (8e)는 정확히 '-시소'를 '-쇼서'로 바꾸고 있다. 이들이 (8b)를 제외하고는 모두 主의 말인 점도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를 남기고 있긴 하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흐읍소'와 '흐시소'가 꼭 같은 등급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흐시소'는 '흐읍소'보다는 약간 높으면서 오히려 '흐쇼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일 수 있다. 이 점은 경상도 방언의 '하이소'와 '하시소' 내지 '하시이소'의 차이와 거의 비슷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즉 '하시소'는 '하이소'보다는 높고 '하시이소'보다는 낮은, 그러나 後者에 더 가까이 가는 등급이다. 그러므로, '흐시소'도 '흐읍소'보다는 높고, '흐쇼서'보다는 낮은, 그러나 '흐쇼서'에 더 가까운 등급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대로 '흐읍소'조차도 '흐쇼서'로 바뀔 수도 있고, 거꾸로 '흐쇼서'가 '흐읍소'로 바뀐 것도 있어서, 이 세 어형의 등급 결정은 좀 더 깊이 따져져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여하튼 결국 '흐읍소'나 '흐시소'는 '흐소'에 {-읍-}과 {-시-}를 덧붙인 것이다. {-읍-}이 근대 국어에 들어 오면서 주체 겸양의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여기서는 상당히 공손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읍-}이 왜 主體 謙讓에서 공손법 즉, 청자 존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는지는 어떤 論理에 의하여 해명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논리를 命令法에서 찾고자 한다. 命令法을 문제 삼는 이유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이다. 命令法은 대체로 聽者가 동작해야 할 주체와 일치하므로, 청자와 주체가 같은 것이고, 청자(=주체)를 높이고자 하는 공손법과 주체(=청자)를 낮추고자 하는 겸양법 사이에 필연적인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古代國語 以來로 主體 謙讓을 나타내던 {-읍-}이 17世紀에 들어오면서 恭遜法의 기능을 담

당하게 되는 것은 國語 文法史에서 하나의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왔다.²⁴⁾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개진하기로 한다.

IV

{-습-}은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主體를 낮추는 것이다(安秉禱 1961, 1982)). 주체를 낮춘다는 것은 話者가 문장의 동작 주체를 문장 속의 제 3 요소와 대비하거나 문장 밖의 제 3 요소와 대비하여 낮게 파악하고, 그 신분성에 알맞은 호응으로 {-습-}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때 문장 속의 동작 주체가 화자 자신일 경우에는 어떤 제 3의 요소에 대비하여 주체를 낮춘다는 것이 바로 화자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또 제 3의 요소가 문장 내부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문장의 밖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聽者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화자는 자신의 동작을 청자에 대비하여 겸양하여 표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공손법(청자존대)이 되는 것이다. 청자에 대비하여 화자를 낮추는 경어법이기 때문이다. 佛經諺解와 같이 특별히 主體, 客體, 그리고 話者, 聽者가 따로 설정되는 문맥에서는 {-시-}, {-습-}, {-이-}와 같은 경어법의 先語末語尾들이 분명히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많은 경우 우리의 일상 언어 생활은 이러한 경어법상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쓰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체로 화자와 청자의 대립 관계만 분명해질 뿐 그 외의 요소들은 일상 언어에 등장할 기회가 드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가 담당하는 청자에 대비한 화자의 낮춤이라는 공손법의 범주가, 제 3의 요소(청자)에 대비하여 주체(화자일 경우)를 낮춘다는 겸양법의 범주와 일치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때는 {-습-}과 {-이-}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야기된다. 그 결과

24) 許雄(1963:64-70), 安秉禱(1967), 李基文(1972:212), 李承旭(1973:174-6)
등이 다같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습-}이 흔히 대화체에 쓰일 때에 처음에는 주체(화자)를 객체(청자)에 대비하여 낮추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나중에 言衆들의 意識 속에서 청자를 높이기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 變身되어 받아 들여 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분명해진다. 이제 우리는 17世紀에 들어 오면서 {-습-}이 본래의 기능과 겹쳐서 청자를 높이는 기능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통로를 열 수 있게 되었다.

「捷解新語」가 ‘호흡소’와 더불어 ‘호시소’를 보여 주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종래 경상도 방언의 영향으로 생각되기도 했다(金亭奎(1974, 下 : 349)). 그것은 康遇聖이 晋州 사람이고 日本과의 무역이 주로 東萊, 釜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지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가지 재미있는 언어 변화상의 표본을 보게 된다. ‘호시소’는 ‘호소’에 {-시-}가 들어간 것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尊敬法의 {-시-}가 왜 공손법이 필요한, 청자를 높이는 자리에 쓰이게 되었을까? 이 문제는 命令法의 특이성을 생각하면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명령법은 청자가 바로 행동을 실행해야 할 주체이므로 명령형 어미를 연결시킨 동사는 예외 없이 그 주어를 청자로 요구한다. 그것은 명령법 자체가 본질상 청자에 대한 행동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장의 주체를 높인다는 것은 바로 문장의 청자를 높인다는 것이 된다. 이 문제는 바로 존경법 {-시-}와 공손법 {-이-}가 겹칠 수 있는 영역을 마련 한다. 主體=聽者이면 主體를 높인다는 것이 바로 聽者를 높인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호시소’형의 예는 매우 귀중한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 준다. 근대 국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니면 바로 그 직전에 {-습-}이 명령문에서, 주체 겹양이 아닌 공손법으로 가능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원래 주체를 높이는, 그리하여 명령문에서는 청자를 높이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와 충돌하게 된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여 ‘동사어간—소’

형의 명령문이 이루어지고, 이보다 한 단계 높여서 청자를 대우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곳에 끼어들 수 있는 先語末語尾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17세기에 주체(화자)를 객체(청자)에 대비하여 낮추는 {-습-}이 이미 청자를 높이는 기능을 갖게 되어 이 환경, 즉 명령법의 ‘호—소’에서 청자를 높일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그런데, {-시-}도 존경법으로 주체가 청자일 경우, 바로 청자를 높일 수 있는 자격을 원래 갖고 있었으므로 이 둘 사이에 필연적으로 경쟁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捷解新語」의 기록 상태는 이 경쟁에서 {-습-}이 승리를 거둔 단계로 짐작된다. 혹은 方言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서 中部方言에서는 {-습-}을 취했고 경상도 방언에서는 {-시-}를 취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호시소’가 重刊改修本에서 ‘호읍소’로 고쳐져 있다면 더·혹은 분명히 입증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예는 없고, 모든 ‘호시소’가 ‘호쇼서’로 바뀌거나 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생각할 것은 유일예 ‘호읍쇼서’의 등장이다.

(9) 아래 사umont의게나 주실 양으로 호읍쇼서(八, 2) : (客) 아래 사umont의게나 주실 양으로 호쇼서(改八, 3)

(9)는 ‘호쇼서’에 조차 {-습-}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습-}이 {-시-}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습-}이 {-시-}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을 암시해 주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호시소’에 대하여 경상도 방언의 영향이라든가 ‘호읍소’에 가까운 등급이라는 파악은 수정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호쇼서체’에 가까운 근대 국어 시대의 공손법의 한 등급으로 설정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호읍소’ 자체도 {-습-}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지 그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여기에 덧붙여 현대 충양어의 ‘합시오=합쇼’와 ‘하십시오=하십쇼’도

중요한 암시를 던진다. 이는 각각 ‘하+음+시+오’와 ‘하+시+음+시+오’로 생각되는데, 화자들은 ‘합시오’보다는 ‘하십시오’가 청자에 대한 대우가 더 높아진 것으로 인식한다. {-읍-}과 {-사이-}를 넣어서 ‘하오’보다 더 높이고 그 ‘합시오’에 다시 {-시-}를 넣으면 한 단계 더 등급을 분화시키는 ‘하십시오’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이-’를 생각하는 이유는 청유법 어미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등급의 청유법은 ‘합시다’와 ‘하십시오’이다. ‘-(으)ㅂ시-’와 ‘-(으)심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중세 국어 아래의 ‘ㅎ옵사이다’, ‘ㅎ시옵사이다’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그 形態素 分析이 ‘하+음+사+이+다’ 및 ‘하+시+음+사+이+다’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명령법에서도 ‘합시오’는 ‘하+음+사+이+오’로 ‘하십시오’는 ‘하+시+음+사+이+오’로 분석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러지 않고 ‘합시오’의 ‘-시-’와 ‘하십시오’의 두번째 ‘-시-’를 존경법의 {-시-}로 간주하면, {-시-}의 중복이 설명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시-’를 ‘사+이’로 보는 데에도 문제는 있다. 우선 {-사-}와 {-이-}의 유착에 의한 ‘-새-’가 ‘-시-’로까지 변화하는 과정이 음운론적으로 썩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다시 ‘합쇼’로까지 가는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합쇼’ 속에 {-사-}와 {-이-}의 기능이 얼마나 살아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일이다. 청유법에 쓰이던 {-사-}가 왜 명령법에 쓰이게 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점은 다소 궁색한 감이 있지만 문제의 명령법이 모두 손윗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명될 듯도 하다. 윗사람에 대한 명령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같이 하고자 하는 완곡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욱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 ‘습+시+이’의 순서가 여기에서 ‘시+습+이’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명되지는 않는다.²⁵⁾ 이에 대한 우리의 설명법은 {-습-}이 겸양

25) 이것이 국어의 역사적 변화와 공시적 기술을 연관지울 때 부딪히는 가장

법으로부터 공손법으로 바뀐 역사적 변화와 관련짓고자 하는 것이다. {-습-}이 {-시-} 앞에 오는 것은 중세 국어적 질서이다. 그리고 그때의 {-습-}은 겸양법이다. 그러나, 근대국어 아래의 {-읍-}은 이미 겸양법의 기능을 잃어 버리고, 공손법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공손법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그 形態素의 統辭·意味的 지위가 {-이-}와 비슷해지거나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배열 순서상의 위치도 {-이-}에 가까이 갈 것이다. {-이-}는 중세 국어 아래로 당연히 {-시-}의 뒷 위치를 점유한다. 따라서, {-이-}와 동사·의미상으로 비슷하거나, 같아진 {-습-}의 위치도 {-시-} 다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혹은 ‘-더시-’가 ‘-시더-’로 바뀌는 것과 관련지어 {-시-}가 어간에 가까이 가려는 변화 경향에 의하여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간 연세 든 분들의 발음에서 ‘갑네다’, ‘갑세다’와 비슷한 어형을 발견할 수 있는 서울 방언의 특징도 이를 지지해 준다.²⁶⁾

문재는 공손법의 등급을 형태소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명령법에 관한 한 {-소}로 충분하다. {-습-}이 들어간 것이나 {-시-}가 들어간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명령문은 청자가 주체이므로 청자를 대우하는 기능으로 바뀐 {-습-}과 존칭 주체에 호응하는 {-시-}가 기능상으로 같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응소’가 인정되

른 어려움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ㅂ+시+도’로 보면 공시적으로는 아주 쉽게 ‘합쇼’까지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새’>‘시’ 혹은 ‘사+이’>‘시’로의 변화가 전혀 허황한 것은 아니다. ‘누+이’>‘뉘이’>‘니’ 등도 비슷한 경로를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임홍민 선생과의 私的인 토의에 힘입은 바 크다. 고마움을 표한다.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지상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李賢熙(1982:151-2)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

26) 최현배(1937) p.310의 ‘여보, 글을 읽읍세다’ p.318의 ‘우리 학교에 갑세다’의用例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또 ‘가세요’ 같은 명령문도 의미심장하다. ‘가시어요’→‘가세요’식의 정서법이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세요’는 ‘가+시+어요’식으로 분석될 것이 아니라 ‘가+사+이+오’로 분석되어야 한다. ‘시+어’→‘세’와 같은 것은 국어 음운규칙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가세요’와의 차이가 전제된다.

면 ‘흐시소’가 인정되는 것이고, ‘흐시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흐옵소’도 인정되지 않아야 올바른 파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잊혀져온, 그리고 본고에서도 아직은 연관시키지 않은, 필자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다. 그것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形態素가 {-습-}과 {-시-} 뿐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적합한 形態素는 바로 恭遜法 語尾 {-이-}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中世國語 이래로 충실히 청자를 대우하기 위하여 화자를 낮추는 문자 그대로의 공손법 선어말 어미였던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바로 이 자리에 {-이-}가 들어간 것이 현대 경상도 방언의 ‘하이소’라고 본다.

‘흐옵소’의 등급에 걸맞은 경상도 방언형은 <표 1>에서 보듯이, ‘하시소’이기도 하지만 ‘하이소’이기도 하다. 실제의 조사에서 ‘하시소’는 ‘하이소’보다 조금 높은 등급으로 파악되었지만, 바로 이 ‘하이소’가 ‘흐一소’에 청자를 조금 더 대우하기 위하여 先語末 語尾 {-이-}가 들어간 모습이다. 이 점은 경상도 방언이 ‘하십시오’, ‘합시오’류를 결여하는 대신, 그 자리에 ‘하시이소’, ‘하이소’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극히 드물게 접할 수 있는 예이지만 평서법의 표준어 ‘갑니다’, ‘먹습니다’에 해당하는 ‘가니이더’, ‘묵니이더’에서도 {-읍-}이 선택되지 않은 혼처을 볼 수 있다.²⁷⁾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평서법 ‘갑니다’, ‘가십니다’, 청유법 ‘갑시더’, ‘가입시더’로 {-읍-}을 다른 서법에서는 선택하고 있다. 이 점은 표준어에서도 ‘빕니다’가 ‘비나이다’로 {-읍-}을 선택하지 않은 古形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렇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 요컨대 경상도 방언은 명령법에서는 {-읍-} 대신에 {-이-}를 사용하여 공손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의 경쟁을 ‘흐옵소’, ‘흐시소’, ‘흐이소’의

27) 이 ‘가니이더’형은 필자가 어렸을 때는 꽤 흔하게 들던 어형이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 用例를 지적해 주신 金烈圭 선생께 감사드린다.

경쟁으로 파악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어는 여기서 중대한 소용돌이를 겪는 것 같다. 그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中世國語 敬語法 體系가 그 자체내에 안고 있었던 體系內의 요인에 기인한다. 중세 국어 경어법은 話者, 聽者, 主體, 客體의 4 요소를 그 근간으로 하는데, 이 4 요소는 주체와 청자가 겹칠 수도 있고, 주체와 화자가 겹칠 수도 있는 체계내적 중복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 중복이 펼연적으로 부딪히게 된 곳이 바로 命令法이다. 여기서는 主體=聽者的 관계에 하등의 의심도 없다. 우리는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로 넘어 들면서 일어난 가장 큰 文法史的 인 變化인 敬語法의 변동 원리를 이렇게 파악, 설명하고자 한다.

이 설명은 또 하나의 부수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소위 ‘합쇼체’라 알려진 현대 서울 방언과 경상도 방언의 ‘하이소체’ 혹은 ‘하시이소체’의 관계를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합쇼’는 서울에서 사용되던 특이한 높임말인데²⁸⁾, 우리는 지금도 술집 같은 메서 문밖에 선,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서 ‘어서 옵쇼’라는 말을 듣고 있다. 필자는 이 ‘어서 옵쇼’에 해당하는 경상도 말이 ‘어서 오이소’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은 아마도 적절한 판단인 것 같다. 바로 ‘한-소/오’에 {-습-}과 {-시-}를 넣은 것이 ‘합쇼’이고 {-이-}를 넣은 것이 ‘하이소’이기 때문이다.²⁹⁾ {-습-}과 {-이-}의 선택은 국어 方言 分化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서울방언이 {-습-}을 선택하여 ‘합쇼’로 변화해 갔는데 비하여, 경상도 방언은 {-이-}를 선택하여 ‘하이소’로 변화해 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근대 국어 ‘한옵소’의 충실한 계승이라 할 ‘합소’가

28) 고영근(1974a:153)에서 下層階級語體라고 불리운 것이다. 고영근(1974b: 77-8)에서는 이를 ‘합쇼체’로 편입 기술하고 있다.

29) 경상도의 걸인들이 ‘한문 줍쇼’ 대신에 ‘한문 주이소’를 쓰는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할 궁금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任洪彬 선생은 1983년 9월 한국언어학회 발표에서 ‘형태소 책’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이 경우의 ‘-ㅂ-’을 {-습-}의 ‘형태소 책’으로 보고, 이러한 표현을 ‘거지말’이라고 이름 부친 바 있다. 任洪彬(1976)에서는 {-습-}의 기능을 ‘화자 겹양’으로 보고 있다.

현대 서울 방언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합쇼’는 ‘하+읍+시+오’ 이기 때문에 {-읍}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시’도 같이 선택된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³⁰⁾ 그렇게 보지 않고 ‘합소’가 ‘합쇼’로 된 것으로 보면 {-소}>‘-쇼’의 변화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울 방언은 ‘하오’→‘하읍시오’→‘하시읍시오’로 공손의 등급이 올라가는데 비하여 경상도 방언은 ‘하소’→‘하이소’→‘하시이소’로 등급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읍-}과 {-이-}의 대립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앞서의 논의와 같다.

서울 방언의 ‘하십시오’의 {-읍-} 뒤의 ‘-시-’를 존경법의 {-시-}로 보면 경상도 방언의 ‘하시이소’의 {-이-} 뒤에도 {-시-}가 허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시이시소”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어형이다. {-이-} 뒤에는 {-시-}가 올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은 ‘기르^수 脣시니이다(月釋十, 19)’와 같은 중세 국어적 질서에서의 ‘읍+시+이’의 배열 순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³¹⁾ 이때의 ‘-시-’가 존경의 {-시-}가 아니라는 증거는 {-이-}의 특이한 활용에서도 찾아진다. ‘있으오’→‘있으시오’→“*있읍시오”→“?있으십시오”와 ‘계시오’→‘제십시오’를 비교해 보면, ‘있—으오’에 {-시-}를 넣는 것이 분명 한 단계 등급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등급이 “*있읍시오”가 아니고 ‘제십시오’로 되고 있는 것이다. ‘합시오’의 ‘-시-’가 존경법의 {-시-}라면 “*있읍시오”로도 충분한 존경의 뜻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30)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가 {-사-}+{-이-}라고 보면 {-이-}도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31) 그러나 경상도 방언의 청유법 ‘가입시더’(혹은 ‘가이시더’로도 쓰인다)의 경우, 언뜻 보기엔 {-이-} 뒤에 {-시-}가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의 지적대로 ‘가+읍+사+이+더’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 때의 ‘-시-’는 {-시-}가 아니다. ‘-읍-’의 {-이-}는 약간의 의심스러움이 있지만((-이-))의 중복과 {-읍-}의 개입 문제) ‘갑시더’보다는 ‘가입시더’가 청자를 좀 더 높이 대우하는 것 같으므로 우리의 {-이-}와 같은 것일 수는 있다. 이 점이 방언의 종결 어미의 전체 체계와 함께 더 짚이 는 의되어야 한다.

어형이고, 그것을 대신하여 ‘제십시오’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시-’가 존경의 {-시-}라면 “*뵙시오”로도 충분한 존경의 뜻이 표현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십시오’가 되어 {-시-}가 따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시-’가 존경법의 {-시-}일 수는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 방언은 {-읍-}과 ‘-시-’를 ‘하—오’에 넣은 것이고, 경상도 방언은 {-이-}를 ‘하—소’에 넣은 것으로 설명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경상도 방언이 중세 국어의 흔적을 비교적 많이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다. 공손법 선어말 어미 {-이-}의 존재도 그러한 면의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어슬프게나마 ‘합쇼’와 ‘하이소’를 연결시키는 원리를 찾아낸 셈이다. 그것은 언어 변화의 한 특징적인 모습을 노정하는 것이었고, 방언 분화의 과정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捷解新語」의 ‘흐읍소’와 ‘흐시소’를 매우 가치 있는 그리고 천재일우격으로 남은 귀중한 자료로 기억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또 하나의 부수적 성과는 경상도 방언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점이다. 이것은 ‘하이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합디꺼?’, ‘합니꺼?’ 류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디-’를 설명하려면 ‘하+읍+더+이+꺼’에서 ‘더+이’ → ‘디’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나-’도 ‘하+읍+느+이+꺼’로 보아 ‘느+이’ → ‘나’로 {-이-}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야만 {-이-} 뒤에서 ‘-꺼’가 나오는 현상이 잘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니꺼’로 잡아 ‘-니-’ 뒤의 ‘-꺼’로 설명하면, ‘디꺼’는 또 ‘-디-’ 뒤의 ‘-꺼’라고 해야 하는 문법 기술상의 잉여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³²⁾

32) 필자는 ‘갑니꺼?’, ‘갑디꺼?’, ‘*갑디니꺼’, ‘*갑니더꺼’, ‘갔읍디꺼’, ‘갔읍니꺼’ 등의 존칭적 의문 어미들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글을 준비하고

V

명령이 가장 공손하게 표현된 것이 ‘호쇼서체’이다. 이는 엄격히 말하여 명령이 아니다. 명령법이란 명칭이 관습적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명령이란 아랫사람에게나 성립되는 것이지 윗사람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명령의 개념을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叙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명령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행동요구법이라는 것이 더 적합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을 글자 그대로가 아닌 화자의 청자에 대한 행동의 요구라는 개념으로 보고 청자가 상위의 인물일 때 공손한 요구가 나타나고 이것이 문법상으로는 ‘-쇼서’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중세국어의 ‘호쇼서체’를 그대로 이어 받은 것으로 初刊本, 重刊改修本 할 것 없이 많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 (10) a. 判事네도 同道^{하야} 오쇼서(一, 2) : (客) 대되 同道^{하여} 오쇼서(改一, 2~3)
- b. 열현이 마른시고 낙일 早早 초조쇼서(一, 14) : (客) 열현히 마른시고 明日 早早 초조쇼서(改一, 19)
- c. 먹기를 과히 허엿소오니 그만^{하야} 마른쇼서(二, 6) : (客) 먹기를 과히 허엿소오니 그만^{하여} 마른쇼서(改二, 14)
- d. 그리움 너기다 마른쇼서(三, 19) : (主) 그리 너기든 마른쇼서(改三, 24~25)
- e. 도라가시게 브라닝이다(六, 5) : (客) 도라가시게 호쇼서(改六, 6)
- f. 성각대로 흐시게 알외쇼서(七, 17) : (主) 이 소연 죠토록 알의어 주쇼서(改七, 15)
- g. 그리 아르서 종용히 호쇼서(八, 10) : (客) 그리 아르서 종용히 호쇼서(改八, 12)

있다. 이에 의하면 ‘-니-’와 ‘-디-’는 공기할 수 없다. 그러나, ‘-었-’과 ‘-디-’, ‘-였-’과 ‘-니-’는 공기할 수 있다. 이는 경상도 방언의 時相, 叙法 문제가 다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덧붙여 이들은 설명의 문에서도 ‘어데 갑니까 (*갑니꼬)?’로 되어 ‘-그’형 어미를 연결시키지 않는다(徐贊禮(1981:170) 참조).

■에서 살핀 바와 같이 初刊本과 重刊改修本 사이에 ‘호쇼서’가 ‘호옵소’로 된 경우와 ‘호옵소’가 ‘호쇼서’로 바뀐 경우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대체로 ‘호쇼서’로 일치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10d, f)는 主의 말인데도 ‘-쇼서’를 ‘-옵소’로 고치지는 않았다. (10e)는 初刊本의 ‘보라님이다’의 ‘호쇼서체’ 平叙法 文章을 ‘-계’ 補文化에 의하여 命令法의 ‘호쇼서’로 바꾸어 놓고 있어 비교적 정연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 ‘호쇼서체’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역시 IV에서 언급한 다음 예 마다이다.

(11) 아래 사Rom들의게나 주실 양으로 호옵쇼서(八, 2) : (客) 아래 사Rom들의에게나 주실 양으로 호쇼서(改八, 3) (= (9)).

이것은 ‘-쇼서’에 다시 {-습-}이 들어가 ‘-옵쇼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改修本에서는 ‘호쇼서’로 고쳐져 있어서 특히 흥미롭다. 앞으로 더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初刊本 刊行 당시의 경어법이 ‘호—쇼서’에 다시 {-습-}을 넣어 공손의 등급을 더 높이려는 경향 까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³³⁾ 그러나,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捷解新語」 자체도 꼭 하나의 용례만 보이므로 아직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런 점들이 필자로 하여금 恭遜法이란 命令文 속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先語末 語尾를 더 넣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機制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든, {-습-}이든, 혹은 {-이-}이든 간에.

VI

지금까지 필자는 「捷解新語」를 통하여 17세기 국어의 命令法 語尾에 대한 관찰을 시도해 왔다. 특히 총점을 모은 것은 初刊本과 重刊改修本

33) 경상도 방언도 ‘하시소서’, ‘하시이소서’가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서울 방언도 ‘합소서’ 혹은 ‘하옵소서’ 및 ‘하시옵소서’가 가능하다.

사이의 차이점이었다. 命令法 語尾에 관한 한, 初刊本이 거의 그대로 重刊改修本에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重刊改修本에서 고쳐 놓은 語形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그 고친 것 중 중요한 점과 이 글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의 경우는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 거의가 간접 인용의 内包文인데, 그것은 文獻의 성격 자체가 外交 對話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장면이 없기 때문이다. 몇개의 ‘-라’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한 것을 간접 인용한 것임에 틀림 없고, 또 어떤 것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한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급이 존재했음을 틀림 없다.

‘-오/소’의 ‘-오’는 보이지 않는다. ‘-소’는 극히 드물게 출현하는데, 이것도 역시 文獻의 성격이 이 등급의 대화를 보여줄 만한 장면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初刊本에 ‘-소’가 나타난 몇몇 문장이 重刊改修本에서는 빠진 내용들이라 그 고친 과정도 엿볼 수 없다. 궁금한 일이다.

‘하옵소’는 가장 많은 用例를 보인다. 이는 {-읍-}의 기능 변화에 의하여 主體 謙讓이 화자가 주체일 때 청자에 대한 恭遜으로 變身하면서 공손법 선어말 어미 {-이-}와 충돌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나서 국어는 ‘동사어간-소’에 들어갈 先語末 語尾로 {-읍-}, {-시-}를 택하는 길과 {-이-}를 택하는 것 사이에 擇一을하게 된다. 근대 국어는 {-읍-}과 {-시-}를 각각 택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 방언은 {-읍-}을 택하여 ‘하옵시오’를 확립하여 ‘합쇼’로, 거기에 다시 {-시-}를 넣어 ‘하십시오’로 굳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읍-} 뒤의 ‘-시-’는 존경법의 {-시-}가 아니라 ‘-사-+ -이-’의 후계인 ‘-시-’에 지나지 않는다.³⁴⁾ 그러나 경상도 방언은 이 자리에 {-이-}를 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이소’를 확립시켰고, 거기에 다시 {-시-}를 넣은 것이 ‘하시

34) 그렇다면 서울 방언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읍-}과 {-이-}가 같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상도 방언은 명령법에 관한 한 {-읍-}이 공손법으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설명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소'이다. 이것이 이 등급의 命令法 語尾에서 方言 分化를 초래한 원인 이 되었다. 이 자리에 {-시-}를 선택한 '혹시소'가 나타나는 것은 별로 기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이 비록 등급상으로 약간의 상승을 보인 것 같기는 하지만 {-시-}의 기능 그대로 주체를 존대하는데, 그 주체 자리에 청자가 왔기 때문에 이 '혹시소'도 공손의 의미를 갖게 되었을 따름이다. 그것은 {-습-}, {-이-} 그리고 {-시-}가 특이하게 命令法에서 충돌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경상도 방언의 '하시소'가 아주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하이소'보다는 분명히 약간 높지만 그것이 하나의 등급이 되어야 할지 불투명한 것이다. '하시이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하소'에 {-시-}가 들어간 것이 '하시소', '하이소'에 {-시-}가 들어간 것이 '하시이소'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하이소' 자체의 등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경상도 방언의 전체 종결 어미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이다.

初刊本의 '혹옵소'가 重刊改修本에서 '혹쇼서'로 바뀐 것은 모두 客의 말이었다. '혹쇼서'가 '혹옵소'로 바뀐 하나의 예문은 主의 말이었다. 이 점은 등급 결정이 매우 미묘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重刊改修本에 와서는 두 등급의 차이가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지만, 初刊本 시대에는 상당히 혼란기였던 것으로 추정해 두었다. 初刊本의 '하시소'가 '혹옵소'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들은 '혹쇼서'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이점은 '하시소'가 '혹옵소'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재고하게 한다. 오히려 '혹쇼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경상도 방언의 '하시소'가 '하이소'보다 약간 높게 판단되는 母方言 話者들의 직관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관되게 궁금한 점은 근대 국어에 '하이소' 형이 없을까 하는 점이다. 이 用例가 발견되면 우리는 좀 더 자신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현대 경상도 방언의 역사를 설명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혹쇼서체'는 별로 특기할 사항이 없다. 단지 '혹옵쇼서'처럼 {-습-}

을 다시 추가한 유일예가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도 重刊改修本에서 ‘**호쇼서**’로 고쳐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중세 국어적 秩序가 현대 국어에까지 일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文法 形態素를 중심으로 한 統辭論 記述이 形態素 몇 개가 강력히 결합하여 한 단위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體系的이고 一貫性 있게, 그리고 真實에 가깝게 文法 現象을 기술할 수 있게 해 줄을 확인하고자 한다(徐泰龍(1981) 참조). 文法的 秩序란 바로 형태소 개개의 결합상의 질서이고, 그 결합상의 질서 속에는 상호 배제와 공존의 제약이 작용하여 원리를 이루고 있을 것이며, A와 B가 결합된 단위는 A+B에 α 를 더한 A+B+ α 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高永根(1974a),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 語學研究 10-1.
- 高永根(1974b),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對한 研究,” 語學研究 10-2.
- 高永根(1976), “現代國語의 文體法에 對한 研究,” 語學研究 12-1.
- 金完鎮(1957, 1971 再收), “捷解新語에서의 日本語 轉寫에 對하여”,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一潮閣.
- 金忠會(1977), “十五世紀國語의 命令法 再攷,” 忠北大 論文集 15.
- 金亨奎(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大 出版部.
- 朴良圭(1975), “尊稱體言의 統辭論의 特徵,” 震檀學報 40.
- 徐禎穆(1979), “慶南方言의 疑問法에 對하여,” 언어 4-2.
- 徐禎穆(1981), “[韓國方言調查質問紙]의 文法篇에 對하여,” 方言 5.
- 徐泰龍(1981), “文法形態素 중심의 統辭論研究에 對하여,” 韓國學報 25.
- 安秉禧(1961), “主體謙讓法의 接尾辭 ‘-官-’에 對하여,” 震檀學報 23.

- 安秉禧(1965a), 文法論, 國語學概論 中, 首都出版社.
- 安秉禧(1965b),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志(建國大) 6.
- 安秉禧(1967), “文史法,” 韓國文化史大系 V,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 安秉禧(1982), “中世國語의 謙讓法 研究에 대한 反省,” 國語學 11.
- 안 병희 · 이 용백(1979), 문법(인문계 고등학교), 보진재.
- 이 기갑(1978), “우리말 상대높임 등급체계의 변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大 大學院)
- 李基文(1972), 改訂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李崇寧(1961),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 李崇寧(1964), “敬語法 研究,” 震檀學報 25·26·27合.
- 李承旭(1973), 國語文法體系의 史的研究, 一潮閣.
- 李翊燮(1974), “國語敬語法의 體系化 問題,” 國語學 2.
- 李翊燮 · 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學研社.
- 李賢熙(1982), “國語 終結語尾의 發達에 대한 管見,” 國語學 11.
- 李熙昇(1957), 새 문법, 일조각.
- 任洪彬(1976), “尊待 · 謙讓의 統辭節次에 대하여,” 문법연구 3.
- 張京姬(1977), “17世紀國語의 終結語尾 研究,” 碩士學位論文(서울大 大學院).
- 許 雄(1963),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 許 雄(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崔起鎬(1981), “청자존대법 체계의 변천 양상,” 紫霞語文論集(상명여대) 1.
- 森田武(1958), “捷解新語 解題,”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國文學研究室.
- Lyons, J. (1977), *Semantics* II, Cambridge Univ. Press.
- Radford, A.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 Press.